

3. 일본 자본 유치를 위한 정책 과제

□ 일본 자본 유치 현황 및 특징

98년 일본 자본의 유치 실적은 88년 이후 처음으로 5억 달러대를 회복하였으며, 제조업·중소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류를 이룸

- (현황) 對韓투자 대폭 증가 추세

- 98년 일본의 對韓투자는 전년보다 큰 폭으로 증가(89.1%), 10년만에 5억 달러의 수준을 회복함. 특히 98년 10월 투자 설명회 이후 투자 문의 건수가 이전보다 3배 증가한 월 60~70건을 기록, 현재에도 36건의 상담이 진행중임
- 대규모 무역 흑자, 금융 구조조정을 통한 대외 신인도 향상 등으로 투자 대상지로서의 매력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 99년 유치 목표는 약 20억 달러에 달함

<외국 자본 유치 실적>

(단위: 건, 백만 달러)

구 분	1996		1997		1998	
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	건 수	금 액
일 본(비중)	261 (27.0)	255 (8.0)	249 (23.6)	266 (3.8)	330 (23.6)	503 (5.7)
전 체	968	3,203	1,055	6,971	1,398	8,852

- (특징) 제조업 중심·중소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류를 이룸

- 제조업의 비중이 전체의 56%(2억 8천만 달러)로 건전한 투자 구조 형태를 보임
- 건당 평균 투자 금액은 152만 달러로 중소·중견기업 위주의 투자가 주류

<일본 자본 유치 상담 진행 상황(98년말 기준)>

진행 수준	합작 투자	단독 투자	사무소 개설	기술 이전	계
완료	3	9	1	-	13
진행중	14	19	1	2	36
계	17	28	2	2	49

□ 對韓 투자 확대의 배경

정부 및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 환경 개선과 활발한 대외 홍보로 일본의 對韓 투자에 대한 긍정적인 분위기가 확산됨

- 신뢰감 증대

- 제1차 투자촉진협의회(98년 12월, 서울)에서 한국 산자부 장관과 일본 通産省 大臣간 “Hot Line” 설치, KOTRA-JETRO에 투자 상담 창구 설치 등을 합의하는 등 양국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의지 표명으로 한국에 대한 신뢰감이 증대함

- 투자 환경 개선

- 「외국인 투자촉진법」의 제정과 해외 투자자를 위한 One-Stop Service 체제의 구축 등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투자 환경 개선 노력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이 확산되고 있음

- 한국의 투자 유인력 제고

- 일본 기업 입장에서라도 해외 투자 진출과 관련하여 아세안 지역으로의 투자 실패로 해외 생산 전략을 재수정하는 과정에서 일정 수준의 기술력과 상대적으로 안정된 내수시장을 보유한 한국을 전략적 파트너로 재인식하기 시작함

□ 투자 유인을 위한 정책 방향

일본 자본 유치에 위한 정책 정비와 함께 투자 성공 사례 홍보, 투자 정보 제공, 애로 사항 청취 등 투자 분위기의 지속적인 확산 노력 필요

- (투자 협정 조기 체결) 투자촉진협의회 후속 조치 이행과 한·일 투자협정 (BIT, Bilateral Investment Treaty)의 체결을 서둘러야 할 것임

- 투자 협력의 민관 합동 창구인 투자촉진협의회에서 합의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면서 산자부-통산성 장관간의 Hot Line을 투자 애로사항 해결에 적극 활용함
- 궁극적으로 양국 기업이 자유롭게 상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투자 이익의 보장 및 투자 분쟁 대책을 포함한 한·일 투자협정을 조속히 체결해야 할 것임

- (성공 사례 적극 홍보) 상담이 진행중인 기업들을 적극 지원해 성공적 자본 유치 사례를 창출하고 이를 적극 홍보함

- 일본 기업들의 경우 한국 투자에 대한 관심은 높으나 과거의 실패 경험 및 정책 불신으로 관망 자세를 취하고 있는 경우가 다수임
- 우리의 자본 유치 노력으로 한국 투자에 성공한 일본 기업의 사례를 관망 기업

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촉진제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(野村總合研究所 견해)

- (투자 분위기 지속 확산) 한국 투자에 대한 정보 제공, 설명회 및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對韓 투자의 분위기를 고조·확산시킬 필요가 있음
 - 투자 전문 일본어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·운영하여 일본 투자가들에 투자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투자 기업의 주요 관심 사항을 전파함
 - 對韓 투자 분위기 확산을 위한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함으로써 투자 희망 및 기투자 기업이 투자 과정에서 느끼는 문제점·애로사항을 수시로 청취함
 - 駐日公館의 상무관실과 무역관이 중심이 되어 동경, 오사카 등 대도시뿐 아니라 나고야, 후쿠오카, 삿포로 등 주요 10여개 도시에서 설명회를 개최하여 대한 투자 분위기를 전국적으로 확산시킴
 - 우수 기술력을 보유한 일본 유망 벤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국내 전략적 제휴 파트너를 알선하여 상호 공동 연구, 제품 생산 및 기술 개발을 유도함으로써 투자 유치업종의 저변을 확대함
- (재일 교포 자본 적극 유치) 재일 교포 기업인에 대하여 투자 환경 개선 사항을 집중 홍보함으로써 교포 자본의 모국 투자를 활성화시킴
 - 교포 기업인들이 모국 투자를 꺼리는 것은 과거의 투자 실패 사례와 정부 정책에 대한 막연한 불신감이 주요 이유임
 - 한국계 언론 매체를 통해 교포 기업인들의 관심 사항인 부동산 취득, 투자 자금 회수 및 세제 등 제도 개선 사항을 집중 홍보할 필요가 있음
- (노사 안정 등 정책의 신뢰성 강화) 노사 안정을 위한 제도 정비 및 엄정한 법 집행 등 정부의 적극적인 사회 분위기 조성이 긴요함
 - 과거 투자 대상지로서 한국을 기피한 이유중의 하나가 노사 분류에 따른 경영 실패였음. 정리해고제 도입 등으로 인해 상황이 크게 바뀌었지만 인사·노무 관리는 한국에 진출하는 일본 기업들의 가장 어려운 부분으로 지적
 - 인원 감축·고용 조정의 간편화 등 노동 시장의 유연성을 제고시켜 투자 대상국으로서의 매력도를 한층 높여야 할 것임

(정 오 영 oyjyoung@hri.co.kr 724-4026)